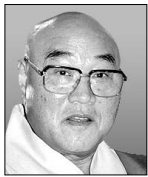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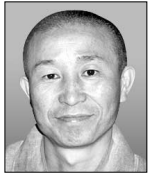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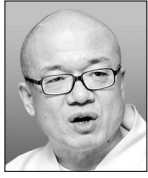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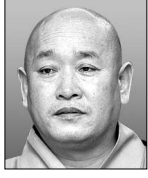
김도문도회 신임 운영위원장에
조계종 호계원장 겸서 스님은 10월 8
일 보은 법주사에서 열린 김도문도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운영위원장에 만
장일치로 추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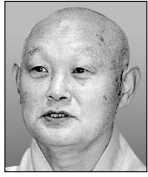
친환경 공양미 협약식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길상
사 극락전에서 '친환경 공양미 협약식'
을 봉행한다. (02)3672-5945-6



지광 스님, 국제신문 대표이사에
서울 능인선원 원장 지광 스님은 10
월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국제신문 대
표이사에 선임됐다. 지광 스님은 지난 9
월 국제신문 이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사회복지재단 보육교사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10월 21~22일 강원도 자연학습
원에서 2006년 산하시설 보육교사 연
수를 실시한다.



제3회 원주종교 산사음악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형 스님은 10월
22일 오후 1시 구룡사 은행나무 밑에서
3대 종교가 참여하는 제3회 원주종교 산
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33)732-4800



나눔기념법회 및 자선음악회
광진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법경 스
님은 11월 10일 오후 2시 건국대 새천
년관 대공연장 공개홀에서 나눔기념법
회 및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제2회 월봉사 문화·예술 축제
울산 월봉사 주지 오삼 스님은 10월
14일 경내에서 소외된 노인복지자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제2회 월봉사 문화·예
술 축제를 개최했다.



'생명과 선식' 주제 강연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10월 23일 오후 2시 광주 여성발전센터
에서 열리는 시민건강무료강좌에서
'생명과 선식'을 주제로 강연한다.



중국 중앙음악학원 객좌교수에
중앙대 박법훈 총장은 10월 11일 중
국 중앙음악학원 객좌교수로 위촉됐
다. 한국인이 객좌교수로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계 큰일꾼 화합한마당
한국불교기자협회 여대동 회장은 10
월 21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운동장
에서 종단협 회장배 '불교계 큰일꾼 화
합한마당'을 개최한다.

창간 12주년 '현대불교'의 특별한 독자 2인

“아내가 챙겨주는 일주일치 ‘영양소’ 예요”

“법문·수행·차·문화 기사 좋아합니다”

살살이 읽으며 불교공부 자료 삼는 한기창 씨

묵은 신문도 안버리고 '보고 또 보고' 이상호 씨

통계관련 공무원인 한기창(43·사진)씨는 집
은 광주이고 근무처는 땅끝 해남이다.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광주로 달려오는 주말부부 생활이
2년째다. 그러다보니 한씨의 일상은 일주일 단
위로 돌아간다.
“매주 집을 나설 때면 ‘현대불교’부터 챙깁니
다. 일간지는 하루 지나면 구문이 되지만 ‘현대
불교’는 며칠을 두고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씨와 ‘현대불교’의 인연은 객지생활 하기
전부터 있었다. 신심 깊은 부인이 ‘현대불교’를
구독하게 됐고, 한기창씨는 어쩌다 한번 펼쳐 보
곤 했다. 그때는 흔히 말하는 ‘무늬만 불자’였다.
법회가 있는 날이면 가족들을 사참까지 배웅하
는 친절은 배웠지만, 법회에 함께 참석하기보다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러다가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가족과 떨어
져 살게 됐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외로움은 커져갔다. 객지생활은 생각보다 감당
하기 어려웠다. 그때 ‘현대불교’가 다가왔다.
매주 부인이 일주일치의 반찬거리와 함께 건
네준 신문이었다. 신문에 나와 있는 스님과 불자
들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다.
특히 스님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큰스님들
의 법문과 생활을 엿보는 ‘큰스님 편안하십니
까’의 고정 팬이 됐다. 원철 스님의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
고’에서는 매
번 감탄을 금
치 못했다.
“잘 그려진
‘그림’은 일주
일 내내 감동
을 줍니다. 원
철 스님의
‘할...방...’이
나 ‘길을 묻는
이에게’에 나
오는 삽화에서
존절살인의 선기(禪機)까지 느낍니다.”
신문을
꼼꼼하게 읽는 편인 부인이 주일마다 줄줄
고여놓는다. 이제는 그가 부인이 밑줄 친 부분보
다 더 중요한 내용을 찾아내곤 한다. 한씨는 불
교를 공부하는데 ‘현대불교’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간 만난 ‘현대불교’를 통해
나름대로 ‘불교 톱’이 되었다. 틈틈이 가족과 함
께 신문에서 소개한 법회에도 참석하고, 좋은 기
사는 동료들에게 소개하기도 한다.
한씨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현대불교신문 읽는
재미를 나눌 생각이다. 광주=이준엽 기자



“정보 전달
이라는 통상적
인 언론의 역
할을 넘어, 불
자들을 수행으
로 이끌며 한
국불교 발전을
선도하는 현대
불교신문에 고
마움을 느낀다.”
창간 독자로
서 본지와 12
년을 함께 호흡해온 이상호(43·사진)씨. 위덕
대 석사논문 ‘중국선종 수행법에 나타난 의정
에 대한 연구’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이씨는
현재 건설교통인재개발원에 근무하며 서강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에서 한국불교를 전공하고
있다.
본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대뜸 “고맙다”
는 말로 입을 열었다.
이씨는 “현대불교가 늦게 출발했지만 참신한
이미지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다”고 창간 초기를
회상하며 “수행 기사 비중이 높아 어느 신문보
다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신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불교언론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할 때 조계
사 선원장 초청법회, 범어사 설선대법회,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 불선사 강설대법회 등 큼직한
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수행풍토를 진작시킨 원
력은 놀라울 정도’라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
았다.
법문·수행면 못지않게 좋아하는 면으로 그는
차(茶)와 웰빙·문화면을 꼽았다. 이씨는 “내 종
교는 불교”라는 생각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이들 기사는 불자다운 생활문화를 일구는 데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직장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바쁜 생활에도
“현대불교 읽기를 거른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그에게 비결을 묻자 “모든 기사를 읽어야 한다
는 생각을 버리고, 자유롭게 편하게 보는 것”이
라고 밝혔다.

느긋하게 읽다보면 흡수도 더 잘 된다는 것.
이씨는 신문을 몇달치씩 쌓아두고 생각날 때마
다 꺼내 읽으며 끊임없이 공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현대불교’는 한국불교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창간 12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불교계와 불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포착하고, 방
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익순 기자



조계사 70년만에 현판 제막식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10월 9일 총무원장 지관, 원로의
원 동춘, 총무부장 현문, 기획실장 승원 스님을 비롯한 총무
원 각부·국장급 스님들과 김중용 종로구청장, 정하건 한국
서예가협회회장, 전각장 오옥진씨 등 1000여명이 동참한 가
운데 조계사 일주문 현판제막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현판이
걸린 것은 현재 건지동 터에 조계사가 자리 잡은 지 70여년만
의 일이다.

지관 스님은 이날 치사를 통해 “성역화 불사로 조계사가
뒤늦게나마 제 모습을 찾고 총본산의 이름에 맞는 현판을 걸
게 된 것을 모두가 기뻐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김상래·김재철 군법사
대령으로 진급



국방부는 9월 28일 국방부 군종실 김상래
법사(사진 왼쪽)와 공군 군종실 김재철 법사
(오른쪽)가 대령 진급가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상래 법사는 1980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82년 범어사 무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같은 해 육군 중위로 임관했다. 이후
육군본부 군종실, 교육사령부, 2군 사령부를
거쳐 현재 국방부 군종실에 근무하고 있다.

8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김재철 법
사는 통도사 진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 86년
공군 중위로 임관했다. 현재 공군본부 군종
실에서 군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김두서 기자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장학금’ 전달



백련사 주민화합 제2회 산사음악회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
경)는 10월 11일 불교환경
장학생 3명에게 각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
혜자는 김용구(서강대 공공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사진
왼쪽)씨와 서울대 대학원
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있
는 조홍원, 서울대 대학원
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
는 김영준씨다.

서울 백련사(주지 설산)는
10월 11일 ‘제2회 산사음악
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
회에는 개그맨 이의환, 불교
방송 아나운서 장수연씨의
사회로 주현미, 설운도, 김종
환, 이수나, 리미티드, 임석
범, 바라솔리스트앙상블(사
진), 강태선(해바라기)객원싱
어 등이 출연해 찬불가와 대
중가요, 가곡 등을 선사했다.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원나 시리 지음, 빌라 스님 옮김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천만 불자의 가슴에 감동을 전해 줄
아주 특별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셨던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평생 동안 보고 듣고 기록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아난존자의 일생의 기록임과 동시에, 부처님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부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던
아난존자가 전하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 부처님 당시
사부대중들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국판양장! 각 702, 710쪽 | 각 28,000원
아난존자의 일기 ① ② 전2권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전화 02)926-8361, 팩스 926-8362

氣功지도사 과정 수련생모집
3박4일코-스(회비 53만원)
골반을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 마세요
만병의 원인이 골반, 척추의 변형인데 근본을
놓아두고 어찌 병을 치료한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골반, 척추를 바로잡는 수련법이 있습니다.
※상기증에 시달리시는 스님, 숨 못 쉬는 스님들 꼭 오세요
수련내용
천심양기법 - 소주천속성법 - 천지관기법 - 복부진단법 - 좌골신경통소통법
기록자동법 - 지기상달법 - 진동공(사기배출법) - 온냉교구법 - 견비동오십견대칭요법
임·독맥소통법 - 의념력수련법 - 불문진단법 - 혈해혈소통법 - 편두통해소법
순환계소통법 - 천기하달법 - 적취(만병의원인)해소법 - 남성학강좌 - 제신공
배설계소통법 - 전신개혈법 - 안면신경마비해소법 - 정맥류해소법
○ 현대인의 복부 돌처럼 굳어있다.
만병의 원인 복부비만, 변비, 배속에 쌓인 「적취」간단하게 푸는법.
남, 여, 노, 소 누구나 아주 쉽게 골반 바로잡는다.
죽어도 안 빠지는 내장지방 간단하게 녹이는 비법공개!
※음악(생기광CD)을 듣는것만으로도 손에서 기가 나오고 사기가 배출되는 CD판매중
14년전통 천일氣문화센터 http://www.chgg.co.kr
소백산수련원 : (054)637-9810 서울분회 : (02)3436-3206
주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